

2024년 학술대회

미래 전장환경에서의
軍(군) 부사관임무수행 발전방안

일시 : 2024년 11월 27일 (수) 10:00~15:00

장소 : 전남과학대학교 산학세미나실

한국군부사관발전연구소

*Korea Military Non-Commissioned Officer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공동주관 : 시단법인 국방보건복지연구원

모시는 글



청명한 가을 하늘과 더불어 풍요로움을 더해 가는 결실의 계절에 전남과학대학교에서 한국군부사관발전연구소 추계 포럼 대회를 사단법인 국방보건복지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번 추계 포럼대회는 “미래 전장환경부사관 임무수행 발전방안”을 주제로 하여 국내·외 부사관 임무수행사 관련 정책 및 실천사례를 통해 군장병의 군생활적응 및 군복지와 연계방안에 대하여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군간부의 다양한 사고를 바탕으로 심토 있는 발표와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포럼대회는 軍(군)부사관발전을 위해 학계와 전문가 집단이 현장의 어려운 간부들을 돕고자 하는 자리이오니, 많은 간부님들과 부사관 임무수행 담당자분들께서 참석하시어 좋은 의견을 나누는 귀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포럼를 통하여 우리군의 간부들이 지역사회와 사회복지의 현장에 대한 보다 쉬운 접근과 활용을 위해 가까워지길 기대하면서 여기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군의 발전에 힘을 모아 주시길 간구 드립니다.

다시 한 번 포럼대회를 위해 모여주신 회원님들과 그리고 군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포럼대회를 준비하신 한국부사관 임무수행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11월 26일

한국군부사관발전연구소장 정명열

환영사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국방보건복지연구원 이사장 이대식입니다.

이번 (사)국방보건복지연구원과 한국군부사관발전연구소의 '2024 미래 전장환경 부사관임무수행 발전방안' 학술 세미나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부사관

임무수행 향상과 실천을 위해 묵묵히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해 오신 군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분단국가에서 군 복무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임무이기에 그 임무를 수행하는 군(軍)간부 및 군(軍)관계자들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분단국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몫일 것입니다.

저희들이 모든 이를 대신해 이번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이번 부사관 임무수행 발전방안을 통하여 군(軍) 부사관 모두가 행복한 군생활을 할 수 있는 길과 방향이 제시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간부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오늘 개최된 추계 학술대회를 통해 마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군(軍) 간부들에게 행복의 빛이 비추어 그 마음 안의 어두움이 물러가 행복한 군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번 부사관 임무수행 발전 방안 학술대회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도 행복을 전달하는 창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사)국방보건복지연구원 이사장 이대식

2024 학술 세미나 일정

시 간		등록 및 개회식	사회 : 문종일(전남과학대교)
09:30 ~ 10:00	등록	등록 및 접수	
10:00 ~ 10:20	개 회 사	정명열 교수(한국군부사관발전연구소)	
	축 사	이병필 대령(육군 부사관학교)	
단체기념촬영			
10:20 ~ 10:40	기 조 강 연	“ 미래 부사관 임무수행에 있어서 최고의 혜택” 김진성 교수 (사)국방보건복지연구원 호남지부 대표고문	
기획주제 발표 및 토론		좌장 : 정명열 교수(전남과학대학교)	
시 간		주제발표 / 내용	비고
10:50 ~ 11:50	제1주제	정순동 박사(육군본부) “최근 전장환경에서 변화된 부사관의 AI역량 강화 활성화 방안 중심으로 ”	
	제2주제	최현호 본부장(PNCS 방산업체) “최근 전장 환경에서의 소부대 통신장비 운용 방안”	
	제3주제	조태환 선임연구원(사단법인 국방보건복지연구원) “군(軍) 간부의 정신전력이 전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부사관 임무수행 향상 방안 ”	
11:50 ~ 12:00	질의 응답 및 폐회 (참석자 전원 식사제공)		

기조강연 자료

군(軍) 부사관임무수행 발전방안
학술세미나

정명열

(전남과학대학교 한국군부사관발전연구소장)

지역사회 복지시설과 연계된 군(軍)간부 자살예방 방안 연구

- 군 예비간부의 고립적 사고를 중심으로 -

정명열 교수 1)

요 약

본 연구는 軍사회복지지원센터와 연계된 軍간부 자살예방 방안에 대한 연구로, 우리 軍에서는 2015년부터 용사들보다 간부들의 자살 비율이 더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군 간부 자살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와 정책 제언이 요구되었지만, 군의 폐쇄성과 군사 정보 보호 규정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국군사회복지학회에서는 군사회복지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군 간부 자살 예방을 위한 심도 있는 정책 연구를 진행하였다.

군 생활 중 발생하는 군 간부의 자살은 기존 용사들의 자살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며, 이는 부대 전투력과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부정적인 파급 효과 또한 상당한다. 따라서 군 간부 자살 문제는 신속한 대응과 효과적인 예방책이 필수적이다.

최근 군 부사관 남녀 1,142명(남군 890명, 여군 252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부사관 인권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휘관에게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4.5%로 나타난 반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도 45.5%에 달했다. 이는 부사관들이 자신의 애로사항을 쉽게 표현하거나 논의하기 어려운 환경임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군 부사관 초급간부 후보생인 부사관 학군단 136명을 대상으로 Reynolds 자살생각 척도를 활용하여 자살 원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SPSS 24.0을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 군 간부의 심리적 고립이 자살생각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1) 전남과학대학교 부사관과 조교수

따라서 본 연구는 군 간부의 심리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자살 예방 대책을 제시하고자 하며, 특히 지역사회 복지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군 간부들이 더 나은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주제어 : 軍간부자살, 군사회복지지원센터, 부사관학군단, 軍자살예방, 고립

I 서론

1. 연구목적

지금까지의 여러 연구에 따르면 한국군의 사망 원인 중 자살이 최근 10년 동안 평균 약 64.6%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국방부 병영정책과, 2024년 2월 발표 자료). 특히 군 간부 자살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이후 전체 군 자살의 약 59%를 차지해, 병사들보다 높은 비율을 보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는 병사들에 비해 간부 자살 예방이 상대적으로 무방비 상태임을 보여준다.

실제 우리 군의 환경에서 간부 자살에 대한 징후를 병사들처럼 조기에 파악하고 예방하는 것은 야전 환경에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군 간부 자살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까를 접근하여 본 연구의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방법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로 간부에 대한 자살 예방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간부의 자살 생각을 감소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심리 상담, 스트레스 관리 교육, 및 복지 지원을 포함해야 하며, 간부들의 심리적 고립감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두 번째로 자살 위험군의 조기 식별 및 조치로 군 간부 자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진 심리적 고립과 업무 부담을 조기에 식별하고 즉각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자살생각 척도 및 우울감 진단 도구를 활용해 위험군을 선별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세 번째로 병사들에 대한 파급 효과 감소 간부의 자살 문제는 병사들에 대한 지휘 및 관리 체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로, 간부 자살 예방을 통해 병사들의 자살률 감소로 이어지는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간부 자살의 표면적 원인(예: 업무 스트레스, 가정 문제 등)뿐 아니라 심층적 원인(예: 심리적 고립, 의사소통 부재 등)을 동시에 분석하고 해결하는 다층적인 접근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간부 자살 문제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군 전체 사망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의 필요성

우리 한국군의 병사들은 다양한 병영생활 적응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과 병영생활 상담관의 지원을 통해 자살 예방의 효과를 보고 있다. 특히, 그린캠프(도움 및 배려가 필요한 병사들을 관리하기 위해 운영되는 병영생활 적응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와 같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병사들의 심리적 안정과 병영생활 적응을 돕고 있다. 또한, 최근 병영생활 혁신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인해 자살 예방에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및 국방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 군의 자살률은 사회 자살률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임이 확인되었다.

[표-1] 최근 민간 및 군 자살자 비교 현황

단위 : 인원(명)

구분	항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군	자살자 수 (명)	56	62	42	83	67
	10만명당 수 (명)	8.8	9.7	7.1	14.1	11.9
일반	자살자 수 (명)	767	772	849	955	825
	10만명당 수 (명)	21.5	21.6	23.7	27.1	24.2

출처: 국방부 2024년 병영정책과 및 통계청 자료 재구성

2022년 기준, 우리 군의 10만 명당 자살률은 약 11.9명으로, 사회(20~29세 기준)의 24.2명과 비교할 때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이는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사고 예방 활동과 병영생활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특히, 사고예방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94년 ‘군 사고 예방 규정’을 제정한 이후, 군 내 자살 사망자는 크게 감소하였다. 예를 들어, 1985년 기준 자살사고는 225건이었으나, 2022년에는 67건으로 약 71% 감소하였다. 또한, 전체 사망사고는 1985년 721건에서 2022년 90건으로 약 82%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성과는 체계적인 예방 정책과 지원 시스템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만, 병사들의 자살률은 줄어든 반면, 군 간부들의 자살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병사 대상 예방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간부를 위한 맞춤형 자살 예방 정책과 심리적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표-2] 軍사망사고자 분석

단위 : 명

구분	사고 유형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여군	계	여군	계	여군	계	여군	계	여군
계	소계	86	2	87	2	55	2	103	8	90	5
군기 사고	소계	60	2	63	2	44	2	84	8	70	5
	자살	56	2	62	2	42	2	83	8	67	5
	총기	-	-	-	-	-	-	-	-	0	0
	폭행	-	-	-	-	-	-	-	-	0	0
	기타	4	-	1	-	2	-	1	-	3	0
안전 사고	소계	26	-	24	-	11	-	19	-	20	0
	차량	6	-	9	-	1	-	8	-	6	0
	항공/함정	7	-	-	-	-	-	-	-	5	0
	폭발	1	-	1	-	-	-	-	-	0	0
	추락/충격	4	-	7	-	2	-	2	-	1	0
	익사	5	-	3	-	5	-	6	-	4	0
	화재	1	-	-	-	-	-	-	-	0	0
	기타	2	-	4	-	3	-	3	-	4	0

출처: 국방부 2024년 병영정책과

이러한 이유를 국방부에서는 2005년 육군훈련소 인분사건과 530GP사건을

계기로 적극 추진된 ‘병영문화 혁신’은 같은 해 자살사고를 64명으로 감소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이는 같은 해 육군26사단에서 시작한 ‘그린존(Green Zone) 운동²⁾’이 3군 전 부대에서 시행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고, 군은 이후에도 2009년 자살 예방을 위한 ‘자살예방 종합시스템’을, 2010년 ‘군내 언어폭력 근절 대책’ 추진 등 실질적인 자살 예방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병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먼저 최근 우리 군의 자살자는 [표-1]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국가 자살률보다 현격이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24년 통계청 자료를 확인하면 OECD 국가 중 자살률은 세계 1위로(2020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4.1명이 자살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지금까지 군 기강 확립 및 사고예방 정책과 병영문화 혁신 등을 추진하여 1985년 225명에 이르던 자살자를 2024년 56명으로 줄이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둔 게 사실이다. 또한 2024년 20세 성인 남성 일반인 자살자 인구 10만 명당 24.2명인데 비하여 軍은 11.1명으로 절반도 안 되는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조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20대의 일반인이 군에 입대를 원할시 신검과정에서나 최초 입소 단계(전방 보충대 및 후방 신교대)에서 정신질환자로 식별이 되면 군 입대를 차단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만 줄어든 것을 판단하여 군에 자살 예방 시스템이 잘 정비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표-2]에서와 같이 군 자체의 사망원인으로 판단했을 때 또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살로 2024년 군의 총 사망인원 86명 중에 자살자는 56명으로 그 비율이 65%에 달하고 있다³⁾. 이러한 의미에서 자살예방은 언제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추진해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 된다.

그 이유는 아래의 [표-3]에서와 같이 간부의 자살은 업무적 및 부대적인 요인 보다는 개인적인 요인이 주된 원인임을 알 수 있다. 간부 자살은 병사들에 비해 정밀한 신상파악이 제한되고 간부 자신의 신상에 대한 노출을 꺼린 경우가 많아 정상적인 자살 예방종합시스템 가동이 제한된다. 대

2) 장병들의 주 활동 공간인 생활관·영내매점 등에서 계급·서열·선임 병에 의한 구타, 가혹행위, 폭언 등의 잔존부조리를 제거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 속에서 자율·창의·책임의 가치를 구현해 병영을 청정하고 안전한 구역으로 만들어 나가자는 운동이다.

3) 국방부 병영정책과 2022년 사망 사고분석 자료(2024)

부분의 간부들은 자신의 치부로 생각 무능력한 간부로 인식될까? 군생활에 지장을 초래할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으로 혼자만의 고민 중 해결 방법을 최후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민간에서도 또한 자살 사망자 121명의 심리부검 결과 93.4%가 자살관련 각종 경고신호(징후)를 노출하나 유가족 및 동료 81%가 인지 하지 못한다고 하였다.⁴⁾ 군내 자살자도 대부분 자살징후 노출 주변 동료들은 식별 하지 못하거나 장난으로 생각하고 지나친 경우가 많다.

[표-3] 군(軍) 간부 및 용사 자살원인

구 분	용 사	간 부
원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영부조리 • 복무부적응 • 신병비관 • 가정문제 • 성격문제(우울증등) • 경제 문제 • 이성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불화 • 가장으로서의 부담감 • 처벌에 대한 두려움 • 부채 • 업무 부담감 • 기타 이성문제 <p>※ 자살 원인중 78%가 개인적 원인</p>

출처: 국방부 자료 재구성(2018)

군 간부들은 타 조직과 다르게 평정에 의해서 진급 및 장기가 선발이 된다. 인사업무에 대하여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군인을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에 비밀을 보장 받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다양하게 분석해 본 결과 간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군사회복지 지원센터가 부대 인근에 군 간부들이 비밀이 보장되면서 도움을 줄 수 있게 존재 해야 되고 그곳에 간부에 고충을 풀어 줄수 있는 전문가집단의 케어가 신속히 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더불어서 이 연구에서의 군 간부의 개인적인 원인들 중에 개인의 고립이 자살생각에 이르는 원인 규명을 통하여 최근 급격하게 증가 하는 軍 간부의 자살의 원인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정

4) 보건복지부 중앙심리부검 센터 2017년

책적 제안을 통하여 우리 군에 병영생활에 중추적 역할은 하는 간부들에 자살률을 낮추는데 정책적 대안 및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이론적 고찰

1. 최근 초급간부의 특성

군 예비간부의 자살생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자살에 원인과 연계하여 바라봐야 하는데 여러 학자들이 분석한 내용들을 요약하여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청소년 자살이 이렇게 증가한 요인은 크게 4가지로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이유는 TV,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영상매체에 노출이 과다하다는 것이다. 일본의 모리아키오(나혼대학 신경과교수)는 “대략적으로 스마트폰이나 게임 등을 일주일에 3일, 하루 1시간 이상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때까지 한다면 중학교에 가서 깊이 생각하는 게 불가능하다. 사물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게 된다.” 라고 이야기 하였다. 우리 주변에 이러한 조건에 들어가지 않은 학생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주변의 청소년들은 대부분이 그렇다고 생각한다.

최근의 청소년들은 말 한마디에도 화가 나서 자살하는 경우도 되게 많다는 것이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다. 조금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고 절제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사소한 것들에 의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일들이 발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제가 전방에서 군복무를 할 때 병사 한명이 자살을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헌병을 통하여 사고사례를 전파를 받았는데, 주요 사망원인이 언어폭력이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내용이 궁금하여 담당 조사 간부에게 어떻게 자살을 했는지 확인을 하였다.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언어폭력은 “야 이 XX야 가서 뒤져버려” 이었다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우리가 여기서 왜 순간적인 감정을 조절 하는 게 중요한가에 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살에 이르게 하는 선임 병의 언어폭력은 분명히 문제가 되는 행동이다. 하지만 자살을 한 본인 입장에서 본다면 선임 병의 말 한마디에

너무 화가 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모멸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에 이른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경우이다. 이런 이야기를 왜 했냐면 군 생활이라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선임 병 입장에서 후임 병이 마음에 들지 않아 순간적인 감정에 욕을 했는데 그 병사가 그대로 받아들이버리고 자살을 행동해 버린 것이다. 자살한 후임병도 불행하지만 언어 폭력을 사용한 선임 병 또한 법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살인자라는 낙인을 평생에 간직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다. 조사 담당자에게 나중에 들은 이야기 이지만 그 선임 병은 군 생활을 다른 병사들보다 잘하는 병사였고 대학에 다니는 평범한 군 복무자였다는 것이다. 후임 병의 잘못을 보면서 순간적인 감정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쏟아부었는데 그것이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아픔이 된 것이다.

관련하여 현재 군의 간부에 대한 자살예방은 실제적인 방법은 우리 군에서는 그래도 민간 군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병영생활 전문상담관⁵⁾’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또한 군 지휘 체계 안에 있기 때문에 군의 계급구조 즉 진급과 연계되어 군 간부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한다. 하여 우리 한국군 간부들의 자살률의 지속적인 증가의 원인과 그에 따른 다양한 연구와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더 특이한 사항으로 자살자의 세부 현황을 확인하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간부의 자살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에 비하여 2014년을 기하여 병사들의 자살률은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중 하나는 군 자살예방 시스템 및 프로그램이 군 병사 위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표-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5]에 대하여 재분석을 하여 보면 군 간부 및 병의 자살자 추이도 병 자살률은 아래의 [표-3]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하향곡선을 보이고 있지만 간부들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표-4] 최근 군 간부와 용사의 자살자 현황

5) 2005년부터 국방부에서 군내 사고예방을 위하여 민간 군무원으로 선발하여 사여단급에 배치하여 상담하게 하는 제도

단위 : 인원(명)

구분	계	간 부	용사	군무원	여군
‘22년	67	34	29	4	5
‘21년	83	63	25	5	8
‘20년	42	24	15	3	2
‘19년	62	31	27	4	2
‘18년	56	32	21	3	
‘17년	51	31	17	3	
‘16년	54	29	21	4	
‘15년	57	31	22	4	
‘14년	57	19	33	5	
‘13년	79	27	50	2	
‘12년	72	33	38	0	
‘11년	97	37	58	2	
‘10년	82	29	52	1	
‘09년	81	23	54	4	

출처: 국방부 2024년 병영정책과

이러한 간부의 자살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는 군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나 우리군의 특수성으로 인한 민간 부분에서 군에 연구는 상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현재 방학 동안에 군부대에 입영을 하여 훈련을 받고 졸업과 동시에 군부사관이 되는 예비 군 간부들을 통하여 우리군 간부들에 정신건강 상태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따른 군 간부를 위한 생명존중 방안에 대한 다양한 대안이 나올 수 있으리라 판단되어 진다.

특이 이와 연계하여 [표-5]에서 확인 한 것처럼 2022년 기준, 특정 연령대(특히 20~24세)의 자살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초급간부와 그리고 병사들의 연령층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확인했다.

[표-5] 최근 군 자살사고 연령대별 비율

구분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비율	계	비율	계	비율	계	비율	계	비율
계	56	1.00	62	1.00	42	1.00	83	1.00	67	1.00
15-19세	1	0.02	4	0.06	3	0.07	5	0.06	4	0.06
20-24세	30	0.54	32	0.52	16	0.38	34	0.41	29	0.43
25-29세	6	0.11	7	0.11	5	0.12	15	0.18	8	0.12
30-34세	6	0.11	8	0.13	4	0.10	12	0.14	8	0.12
35-39세	3	0.05	2	0.03	2	0.05	4	0.05	4	0.06
40-44세	4	0.07	5	0.08	5	0.12	4	0.05	4	0.06
45-49세	3	0.05	1	0.02	5	0.12	7	0.08	5	0.07
50-54세	2	0.04	1	0.02	2	0.05	1	0.01	4	0.06
55-59세	1	0.02	2	0.03	0	0.00	1	0.01	1	0.01
60-64세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출처: 국방부 2024년 병영정책과

이러한 군간부의 자살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군자체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관련된 조치를 하고 있지만 군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소기의 효과를 내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다.

2. 軍 간부의 자살생각

흔히들 자살생각을 하면 자살과 동일 시 하는 경향이 있다. 분명한 것은 자살생각 또한 자살로 들어가는 중요한 길목에 있지만 자살과는 구별이 된다. 많은 연구자들은 자살에 대한 진행을 여러 단계로 구분하여 연구를 하였다. 실제로 사전적 자살의 의미는 자살의 어원은 라틴어의 sui(자기 자신)와 caedo(죽이다)의 두 낱말의 합성어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자살이란 그 원인이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당사자가 자유의사(自由意思)에 의하여 자신의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이 정의는 일견 명백하기는 하나 실제로는 여러 문제가 있다.(두산백과, 2025)

하지만 여러 연구자들은 자살은 자살생각(Suicide ideation), 자살계획

(Suicide plan), 자살시도(Self-injurious behavior), 자살(Completed suicide) 이상 4가지로 나누고 (Kalafat, 2008; Nock 등, 2008) 있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Kalafat(2008)은 자살생각(Suicide ideation)은 목숨을 끊고자 하는 행위를 하려는 생각을 의미한다고 이야기 하면서 자살생각의 심각성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살생각의 빈도, 강도,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Nock 등(2008)은 자살계획(Suicide plan)은 죽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구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고 자살시도(Self-injurious behavior)는 죽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자해행위를 시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면서 연구자들은 자살의도가 없는 자해행위와 자살시도가 구별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자살(Completed suicide)은 죽고자 하는 의도로 인한 직간접적인 증거가 있는 상해로 인한 죽음을 의미한다. (Kalafat, 2008) 우리 군에서도 자살생각에 대한 척도를 활용하여 부대별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도움 및 배려병사의 선별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3. 軍간부의 고립

軍人の 고립은 심리적 고립과 시스템적 고립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표-6] 지휘관에게 의견제기의 자유로움

구 분	부사관	
	남군	여군
계	890	252
매우 그렇다	289(32.5%)	40(15.9%)
다소 그렇다	266(29.9%)	77(30.6%)
보통이다	218(24.5%)	75(29.8%)
별로 그렇지 않다	81(9.1%)	49(19.4%)
전혀 그렇지 않다	36(4.0%)	11(4.4%)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8년 부사관 인권상황 실태조사 제구성
특히 자살에 대한 원인은 과거의 수많은 연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상태

로 추가적인 연구는 무의미 하다고 보여 진다. 다만 자살생각에 이르게 하는 군간부의 개인에 특성을 판다하여 자살생각에 도달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앞에 자료에서 보았듯이 군 간부 자살해 가장 큰 위협적인 계급은 하사 및 중사에 해당하는 초급 부사관들이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의미 있는 연구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부사관 인권실태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내용을 아래 [표-6] 에서 확인해 보면 가장 크게 두드러지게 확인할 수 있는데 지휘관에게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없는 인원이 약 470명(41%) 정도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판단해 보았을 때 조사대상자 중 초급간부들(하사 및 중사) 비율이 확인되지 않지만 상당수 초급 부사관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 되었을 때 직원에게 자유스럽게 이야기 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서 고충 및 의견 제시에 따른 비밀유지가 되는 지에 대한 설문 조사를 총 1178명을 대상으로 실시 했는데 423명의(35.9%) 부사관들이 비밀유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표-7] 고충/의견 제기 시 비밀 유지

구 분	부사관	
	남군	여군
계	894	248
매우 그렇다	355(39.7%)	38(15.3%)
다소 그렇다	242(27.1%)	84(33.9%)
보통이다	189(21.1%)	70(28.2%)
별로 그렇지 않다	73(8.2%)	35(14.1%)
전혀 그렇지 않다	35(3.9%)	21(8.5%)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4년 부사관 인권상황 실태조사 제구성

이런 조사 상황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군 부대 내에서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 군 초급 간부들에게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상황과 또 자연스럽게 이야기 하더라도 비밀이 유지 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개인의 신상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는 것들은 인사상의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간부들이 문제 발생 시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접근이 매우 힘든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간부의 고립적인 상황을 인지하는데 과거 2017년 한국군사회복지학회에 추계 학술대외간에 연세대학교 군사회복지연구소에서 초급간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어떻게 군 간부에게 도움을 주어야 할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1. 귀하는 군내 전문상담가와 개별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음	없음
3명(0.3%)	997명(99.7%)

2. 귀하는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전문가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함	필요없음
994명(99.4%)	6명(0.6%)

3. 귀하는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전문가가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군내부(본부이외지역)	군외부(군부대인근지역)
58명, 5.8%	942명(94.2%)

위에 설문조사 및 국가인권위의 자료를 판단해 보더라도 두기관의 조사를 통해서 우리 군 간부들이 실질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고 또한 군간부의 고립을 이해 하는데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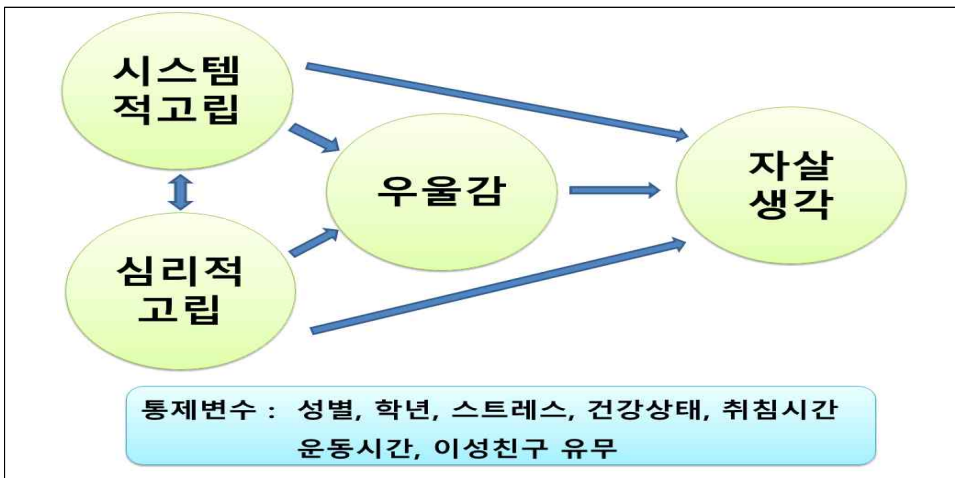
1. 부사관 후보생의 시스템적 고립 및 심리적 고립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2. 부사관 후보생의 시스템적 고립 및 심리적 고립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3. 부사관 후보생의 시스템적 고립 및 심리적 고립과 자살생각을 관계에

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파악해 본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군 초급예비간부 후보생의 고립적 사고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해 그림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1] 연구모형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이 연구는 횡단연구로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연구 조사당시 군 간부과정에 훈련을 받고 있는 예비간부 대상자 총 1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부사관 학군단 예비간부 18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전국의 육군 부사관 학군단이 있는 대전과학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3개 대학의, 부사관 간부 후보생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설문조사는 현재 우리 군 간부에 자살자 중 가장 많은 계급에 포함된 부사관 계급 중에 하사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관련하여 자료를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군 간부 자살예방에 도움이 되는 군 예비간부의 고립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3. 측정도구

1) 시스템 및 심리적 고립

본 연구에서의 고립은 Weiss(1973)가 정의한 감정적 고립(Emotional isolation)과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고립은 우리나라 노인자살의 원인에 실질적으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로 분석상 비판이나 우울과 연관이 있다.

고립의 변수는 Lubben 등(2002)의 사회적 네트워크 척도(Lubben Social Network Scale : LSN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으로부터의 인지된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의 확인을 위하여 만나는 사람에 대하여 네트워크적 양 및 빈도를 측정하는 것과 완벽하지는 않지만 감정적 고립(Emotional isolation)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간관계의 친밀감을 측정하는 것으로 양분하여 설계되었다.

2) 우울

벡 등(1961)이 우울증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자기보고식 검사로서, 총 21개 문항으로 되어 있다. 즉, 분위기(mood), 염세사상(pessimism), 실패감, 불만족감, 죄악감, 수벌감(受罰感), 자기혐오, 자기 비난, 자멸원망, 울고 싶은 기분, 초조감, 사회적 퇴각, 미결정, 신체상(身體像), 일의 억제, 수면장애, 피곤, 무식욕(無食慾), 체중감소, 신체에의 선입감, 리비도 결여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자신의 기분을 잘 기술하는 정도에 따라 0~3점까지 채점한다. 총점의 범위는 0~63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하고 다양한 우울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한다. BDI는 실시가 편하고 채점과 해석이 용이하여 자주 사용되는데, 정상 대학생 집단에서 Cronbach's α 는 .86 이고, 정신과 환자 집단에서는 Cronbach's α 는 .87로 나타났다⁶⁾.

3) 자살생각

Reynolds 자살생각 척도(SIQ)를 활용하였는데 이척도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자주 자살생각을 하지를 알아보기 위한 측정도구 이다. 이 SIQ는 많은 청소년들이 우울 하지는 않지만 자살생각을 보인다는 관찰로부터 제작

6) [네이버 지식백과] 벡의 우울척도 [Beck Depression Inventory, -憂鬱尺度] (상담학 사전, 2016. 01. 15., 김춘경, 이수연, 이윤주, 정종진, 최웅용)

된 척도로 자살생각을 측정하는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기 보고형 척도이다 총 30문항 수 중에 점수에 보면은 0점에서 180점으로 각 문항은 0점에서 6점으로 평가하여 각 문항 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구한다. 총점에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에 대한 생각이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문헌 고찰을 바탕으로 우울과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최종학력, 스트레스, 건강상태, 취침시간, 이성친구 유무로 구성하였으며 건강과 경제적 상황이 나쁠수록, 비공식적 지원망이 상실 되었을 때 우울정도가 높다.(이민숙, 2004) 그리고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인원과 여가활동의 유형과는 상관없이 여가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인원보다 우울의 정도가 낮은 편이다(Jonathan, 2003; Singh, 2001). Grazmararian(2000)는 활동하지 않는 사람은 활동하는 사람들에 비하여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두 배나 높다.(김형수, 2000 재인용) 등의 위의 선행연구결과를 분석하여 선정하였다.

4. 분석방법

이 연구는 분석을 위하여 SPS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인 초급 부사관 후보생 인구학적 특성과 고립의 정도와 우울증 그리고 자살생각 등 주요 변수를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주요 변수 연관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의 빈도분석을 확인해 본 결과 설문 응답자에 총 136명으로 여학생이 19명 남학생이 117명의 응답을 하였다. 대학별로 여학생 수가 많지 않아서 위와 같은 결과를 얻었고, 대학별로는 전남과학대학교에서 59명 대전과학대학교에서 38명 경북전문대에서 39명이 접수를 하였고, 학년 별로는 1학년이 29명, 2학년이 107명이 설문에 응하였다. 응답자의 한달동안의

스트레스를 확인해 본 결과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인원이 49명 36%정도이고 거의 없다는 47명 34.6% 그리고 가끔있다는 36명 26.5%, 자주 있다는 4명으로 2.9%입니다 건강 상태는 좋다가 65명의 47.8% 그리고 보통이 54명으로 39.7% 걱정하는 인원 27명으로 12.5%입니다 이성 친구가 있는 것은 65명으로 47.8% 없는 인원이 71명으로 52.2%가 해당 되겠습니다. 취침시간은 10시 이전에 사는 인원은 2명으로 1.5% 10시부터 12시까지는 44명으로 32.4% 12시부터 2시까지 이자는 인원은 83 명으로 61%가 해당이 된다. 새벽 2시 이후에 자는 인원도 7명으로 5.1%가 되겠습니다 운동시간은 3시간 이상 하는 인원은 2명으로 1.5% 2시간에서 3시간 하는 인원은 11명으로 8.1%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74 명으로 54.4% 1시간 미만은 49명으로 36%가 되겠습니다.

[표-8]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

변수명		빈도	%	변수명		빈도	%
성 별	여자	19	14.0	건강 상태	좋다	65	47.8
	남자	117	86.0		보통	54	39.7
					걱정	17	12.5
대 학	전남과학대	59	43.3	이성 친구	있다	65	47.8
	대전과기대	38	27.9		없다	71	52.2
	경북전문대	39	28.6				
학 년	1학년	29	21.3	취침 시간	10시이전	2	1.5
	2학년	107	78.7		10~12시	44	32.4
					12~2시	83	61.0
					새벽 2시 이후	7	5.1
1달 스트 레스	전혀 없다	49	36.0	운동 시간	3시간 이상	2	1.5
	거의 없다	47	34.6		2~3시간	11	8.1
	가끔있다	36	26.5		1~2시간	74	54.4
	자주있다	4	2.9		1시간 미만	49	36.0

2. 조사대상의 주요변수 실태

본 연구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별 기술통계량분석은 독립변수로 사용된

심리적고립과 시스템적고립의 평균은 각각 최소값 1부터 최대값 4까지의 구간에서 1.96(0.902), 1.68(0.679) 였으며, 매개변수로 사용된 우울정도는 평균은 최소값 1부터 최대값 3까지의 구간에서 1.15(0.332) 였으며, 종속변수로 사용된 자살생각은 평균은 최소값 1부터 최대값 3까지의 구간에서 1.06(0.268)로 나타났다.

[표-9] 시스템 고립에 따른 우울, 자살생각 평균차이 ANOVA 검증

구분	시스템 고립(하)		시스템 고립(중)		시스템 고립(상)		F (Scheffe)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우울	1.04	.072	1.15	.305	1.38	.694	2.591
자살생각	.220	.021	.245	.023	.564	.199	3.430* a, c<b

* $p<.05$, ** $p<.01$, *** $p<.001$, a=시스템고립 하, b=시스템고립 중, c=시스템고립 상

위의 [표-9]에서 확인해 보았듯이 시스템 고립을 우울과 자살생각에 대한 여 검증을 실시한 결과 시스템 고립은 자살생각에 p값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0] 심리적 고립에 따른 우울, 자살생각 평균차이 ANOVA 검증

구분	심리적 고립(하)		심리적 고립(중)		심리적 고립(상)		F (Scheffe)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우울	.253	.023	.463	.232	.726	.219	6.448** b, c<a
자살생각	.173	.016	.750	.375	.590	.178	6.691** b, c<a

* $p<.05$, ** $p<.01$, *** $p<.001$, a=심리적고립 하, b=심리적고립 중, c=심리적고립 상

위의 [표-10]에서 확인해 보았듯이 심리적 고립을 우울과 자살생각에 대한

여 검증을 실시한 결과 심리적 고립은 우울과 자살생각 모두에 p 값이 0.05 수준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1] 상관분석 결과표

	고립	자살생각	우울
고립	1		
자살생각	.297**	1	
우울	.378**	.811**	1

* $p < .05$, ** $p < .01$, *** $p < .001$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에 따른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위의 [표-11]과 같이 독립변수들 간의 전반적인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각 변수 간에 P 값이 0.005보다 작아 상관계수는 0.01 수준에서 서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2]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 (N=136)

구 분	B	표준오차	β	t
성별	-.231	.119	-.398	-2.600
학년	-.018	.027	-.047	-.660
시스템적 고립	.043	.040	.058	1.081
심리적 고립	.034	.019	.124	1.807
우울	.652	.046	.809	14.142
상수		2.888**		
F		50.567***		
R		.821		
R ²		.675		
aj R ²		.661		

* $p < .05$, ** $p < .01$, *** $p < .001$

초급 부사관 후보생의 고립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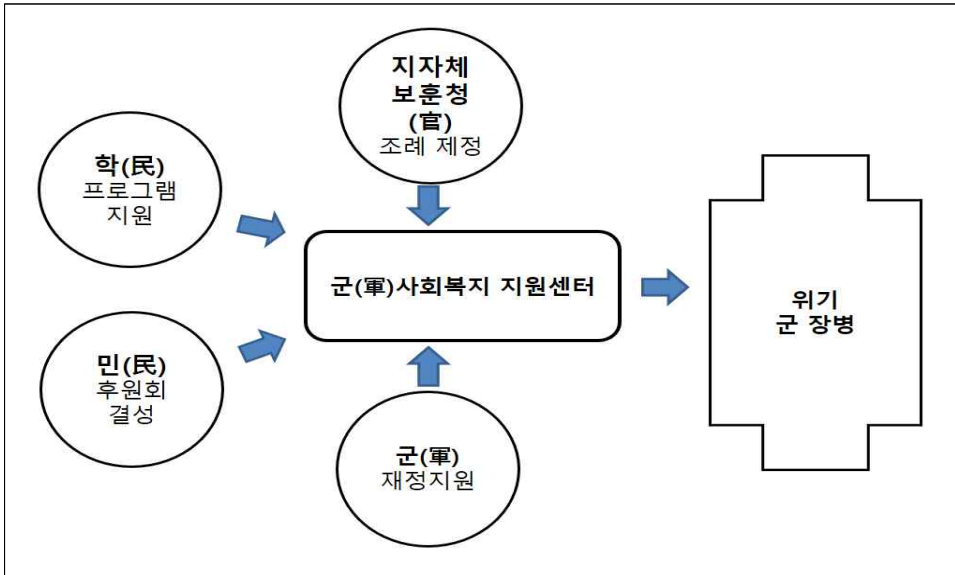
를 분석 한 결과는 [표-12]와 같다. 독립변수인 시스템적 고립과 심리적인 고립이 종속변수인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파악하였으며, 고립과 자살생각의 관계속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우울과 자살생각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또한 상호작용항의 다중 공선성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 VIF)와 공차한계(Tolerance)가 각각 3미만, .4이상인지 확인한 결과, VIF 1.226, 공차한계 .816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표-12]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p < .001$)를 보였다. 또한 우울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것도 유의미한($p < .001$) 영향을 미치고 있어 고립이 높을 수록 초급 부사관 후보생의 우울과 자살생각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본 연구는 우리 군의 자살예방을 위하여 자살생각의 원인적인 부분을 찾아보고 그에 따른 대안을 찾아보고자 실시한 연구로써 최근 우리 軍의 간부 자살의 문제에 심각성을 인식하여 실질적인 원인과 예방책을 찾아보고자 연구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군의 자살은 단순한 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군 입대 전 가정이나 사회에서 이미 문제가 연계된다고 이야기 하여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강하고 특히 간부의 경우 개인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기에 개인적인 문제로 보고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나 사회 현상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여 자살에 원인을 군에 제반의 여건 속에 고립적인 요소에 극단적인 행동을 일으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고립을 제거하여 군 간부의 자살을 예방 할 수 있는 빠른 조치가 필요함을 다시하면 이번 연구를 통하여 확신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군간부를 위하여 빠른 민간에서 운영하는 군사회복지지원센터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와 같은 시설은 미국의 사례를 본받아 제대군인 지원처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해야 하는 것은 이에 따른 제도화를 모색해야 하는 것을 가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간부에 지원체계는 지자체 또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해야 한다는 의견은 반드시 제시하고 싶다, 실제로 우리 군에는 심리적으로

어려움에 도움을 주기위한 군 간부 및 병사들에 위기상황에서 군에 지휘 체계에 있는 병영생활 상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군 간부의 특성상 이러한 지휘체계 안에서 도움은 어디까지나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져 아래와 같이 [그림-2]의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 한국군의 軍사회복지지원센터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2]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 한국군의 軍사회복지지원센터 모형

군 간부의 사생활이 보호되는 별도의 체계 안에 있는 상담사에 의해 실질적인 위기상담이 이루어진다면 실질적인 위기개입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예를 들어 군 간부의 경우 부체로 인한 상담 시 관련 내용이 부대에 알려졌을 때 진급 및 인사 상 불이익으로 인한 군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되는 상황에서 민간에서 운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군 軍사회복지사의 활성화 방안은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어 왔고 이번에 제시한 군 사회복지 모형은 현재 진행 중에 우리 군에 취약점은 시기적으로 빠르게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1) 저서, 학술지, 논문

- 정명열 · 김재수 · 정대현, 2015, 「사례중심 軍 생명존중 실무」, 나누리 출판사
- 정명열, 2014, “軍 생활 중 자살행동 경험의 의미와 과정연구(후방지역 軍 전역자의 회고를 중심으로) 「한국군사회복지학회」 7(2):99~109
- 신민섭. 1993. 자살 기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 자기도피 척도의 타당화.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임병우, 2016, 노인의 차별경험, 상실감, 우울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성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한국자살예방협회, 2009 자살사망자 심리적 부검 및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서비스 구축방안, 보건복지부.
- 2024년도 부사관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2025, 2025 부사관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토마스 조이너, 김재성 번역, 2012, 왜 사람들은 자살하는가?, 황소자리, 서울.

2) 인터넷자료, 신문기사, 기타자료

- 두산백과. 2024. “자살의 개념, <http://www.doopedia.co.kr/>
- 통계청, 2024, “한국인의 사망원인”, <http://www.kosis.kr>.
- 네이버 지식백과, 벡의 우울척도 [Beck Depression Inventory, -憂鬱尺度] (상당학 사전, 2016. 01. 15., 김춘경, 이수연, 이윤주, 정종진, 최웅용)
- 보도자료. “군내 자살·사고 확 줄었다.” 국방일보. 2011. 7. 12. 병영생활 6면 상

<국외문헌>

- Andrews, J. A., & Lewinsohn, P. M. (1992). Suicidal attempts among older adolescents: Prevalence and co-occurrence with psychiatric disorder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1(4), 655-662. doi: 10.1097/00004583-199207000-00012

- Bean, G., & Baber, K. M. (2011). Connect: An effective community-based youth suicide prevention program.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41(1), 87-97. doi: 10.1111/j.1943-278X.2010.00006.x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 497-529.
- Chang, J., Shrake, E., & Rhee, S. (2008). Patterns of alcohol use and attitudes toward drinking among Chinese and Korean Americ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thnicity in Substance Abuse*, 7(3), 341-356.
- Christensen, H., Griffiths, K. M., & Jorm, A. F. (2004). Delivering interventions for depression by using the internet: Randomized controlled trial. *BMJ*, 328(7434), 265. doi: 10.1136/bmj.37945.566632.EE
- Goldston, D. B., & Compton, J. S. (2009). Adolescent suicidal and nonsuicidal self-harm behaviors and risk. In E. J. Mash & R. A. Barkley (Eds.), *Assessment of childhood disorders* (pp. 305-343).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Jessor, R., Donovan, J. E., & Costa, F. M. (1991). *Beyond adolescence : Problem behavior and young adult development*.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oiner, T., & Van Orden, K. (2008). The Interpersonal - Psychological Theory of Suicidal Behavior Indicates Specific and Crucial Psychotherapeutic Targets. *International Journal*

- of Cognitive Therapy, 1(1), 80-89
- Kalafat, J. (2008). Suicide Handbook of adolescent behavioral problems: Evidence-based approaches to prevention and treatment. New York, NY: Springer
- Lifeline. (n.d.). Suicide prevention education programs. Retrieved January 25, 2013,
- Lubben, Gironde, & Lee. (2002). Refinements to the Lubben Social Network Scales: The LSNS-R. The Behavioral Measurement Letter, 7(2). 2~11.
- Masango, S. M., Rataemane, S. T., & Motojesi, A. A. (2008). Suicide and suicide risk factors: A literature review. South African Family Practice, 50(6), 25-29.
- Nock, M. K., Borges, G., Bromet, E. J., Cha, C. B., Kessler, R. C., & Lee, S. (2008). Suicide and suicidal behavior. Epidemiologic Reviews, 30(1), 133-154.
- Weiss, R. S. (1973). Loneliness: The Experience of Emotional and Social Isolation. MIT Press.
- YellowRibbon. (2012). Yellow ribbon ask 4 help cards. Retrieved January 25, 2013, from <http://www.yellowribbon.org/>

<ABSTRACT>

A Study on Prevention of Military Officer Suicide Linked to Military Social Welfare Support

-Focusing on the isolated thinking of military reserve officers-

Jeong, Myong-Lyor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COs

Chunnam Techno University

This study is a study on prevention of military officer suicides linked to the Military Social Welfare Support Center. Since 2015, our military has committed more suicides than soldiers. As a result, interests and research papers should be practically presented, but various types of research on the closure of military forces and military information security have not been conducted. In-depth research was conducted to make policy suggestions.

Military officers' suicide i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soldiers' suicide, and military officers' suicides have a great effect on the combat power and the ripple effect.

According to a recent NCO report on 1,142 NCOs (890 men and 252 women), 54.5% positively responded to the commander and 45.5% negatively responded. It is analyzed that it is not easy to talk about the difficulties with the NCOs. As a result, we conducted a study on the cause of suicide through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24.0 with 136 NCOs, the preliminary candidates of the NCO's beginners, and a reynolds scale for suicidal thoughts. This has been found to affect suicidal thoughts.

Key words: military suicide, military recovery support center, RNTC, prevention of suicide, isolation

제 1 주 제

미래 부사관 임무수행에
있어서 최고의 혜택

김진성

(공공행정학박사수료, 국방보건복지연구원)

1. 자료요약

군생활에서 부사관의 임무는 단순한 업무 수행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부사관은 전장에서 부대를 이끌고, 병사들에게 본보기가 되며,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사관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혜택은 어려움을 통하여 형성된 강인한 마인드입니다.

2. 군생활과 강인한 마인드 형성

부담을 피하지 않고 임무에 성실히 수행하는 부사관의 일상은 도전의 연속입니다. 어려움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맞서며 임무를 수행할 때, 부사관은 내면적으로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예시: 임무 수행 중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한 경험은 개인의 성장과 조직의 신뢰를 동시에 강화합니다. 군 간부로서의 자부심 형성을 위해 부사관은 병사들과 간부를 연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조직 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책임을 완수하며 얻는 자부심은 부사관의 강인함을 강화합니다. 특히 우리군에 다양한 사고 예방활동으로 생명존중 활동, 사망 사고 예방활동, 자살 예방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임무수행 하고 있으며 관련된 성과는 부사관의 헌신과 노력의 결과입니다.

3. 미래의 멋진 부사관이 되기 위한 길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모든 임무를 단순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학습과 성장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책임감 있는 태도는 개인의 전문성을 높이고, 조직 내 신뢰를 구축합니다.

강인한 마인드를 통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데 그를 위하여 강인한 마인드는 단순히 군생활에서의 성공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군생활 이후에도 강한 리더십과 조직 관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4. 마무리

“군생활에서 얻는 최고의 혜택은 바로 강인한 마인드입니다.”

임무에 당당히 맞서고 책임감을 다할 때, 부사관으로서의 성장은 물론, 미래의 멋진 자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조직에 헌신하고, 스스로를 단련하며, 강인한 리더로서 빛나길 바랍니다.

전남과학대학교
미래부사관 임무수행에
있어서 최고의 혜택



I am the best non-commissioned officer in the world 나는 세계최고의 부사관이다 I am the best non-commissioned officer in the world 나는 세계최고의 부사관이다 I am the best non-commissioned officer in the world 나는 세계최고의 부사관이다 I am the best non-commissioned officer in the world

최고의 혜택

INDEX

➤ 부담을 피했을 때

01 타조증후군

02 히키코모리

03 나우르공화국

➤ 부담을 넘었을 때

01 ALIVE

02 세컨드윈드

03 커넬 할랜드 샌더스

부담을 피했을 때

부담을 피했을 때



부담을 피했을 때

타조증후군(Ostrich Syndrome)

타조가 평야에서 맹수나 사냥꾼을 만나면
모래에 머리를 파묻는 타조의 행동을 두고 생겨난 말,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대응 및 해결을 하지 않고
현실부정 속에서 문제 대응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해
나중에 심각한 화를 입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출처 : 나무위키)

부담을 지냈을 때

히키코모리, 청년층 넘어서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

좁디좁은 방 한편...
여기가 나의 세상입니다.

부담을 지냈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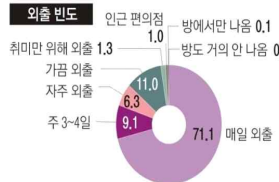
히키코모리,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단위: %)

은둔생활 이유



외출 빈도



(자료: 국무조정실)

만 19-34세 청년 가구원을 포함한 1만 5000가구를 대상으로 청년 삶 실태조사를 했다.

응답자 중 2.4% 은둔 청년, 24만 4000명 추산

한국 청년 은둔형외톨이 비율, 일본보다 높은 수치

'80대 노부모에 의존하며 생활하는 50대 히키코모리 자녀를 의미하는 8050문제도 나타남

2023. 3. 7 서울신문

부담을 피했을 때

히키코모리, 테스트

전혀 그렇지 않다(0점) / 가끔 그렇다(1점) / 자주 그렇다(2점) / 항상 그렇다(3점)

1.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꺼리거나 두려워한다.
2. 사회적 상호작용을 피하거나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
3.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 대면 접촉을 거의 하지 않는다.
4. 온라인 활동(게임, SNS 등)에 많은 시간을 보낸다.
5. 낮과 밤이 바뀐 생활을 한다.
6. 취업이나 학업을 중단한 상태다.
7.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8. 자존감이 낮다고 느낀다.
9. 신체적 불편함(두통, 소화불량 등)을 자주 경험한다.
10. 우울하거나 무기력한 감정을 자주 느낀다.
11. 강한 스트레스 상황 후 은둔 생활을 시작했다.
12. 가족이나 친구들이 내 생활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현한다.
13. 새로운 환경이나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14.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지나치게 신경 쓴다.
15. 혼자 있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낀다.

부담을 피했을 때



히키코모리, 테스트 결과

결과 해석

총점을 계산하세요. 점수 범위는 0점에서 45점입니다.

- 0 - 15점 : 은둔형 외톨이 성향이 낮음
- 16 - 30점 : 은둔형 외톨이 성향이 중간 정도임
- 31 - 45점 : 은둔형 외톨이 성향이 높음

부담을 지냈을 때



부담을 지냈을 때



나우르공화국의 비극

나우르공화국은... 결국...

오스트레일리아 북동쪽 남태평양에 위치. 총면적 21km²에 1만여명 정도 거주.
앨버트로스의 배설물이 퇴적(인광석)되어 만들어진 섬.
인광석은 화학비료로 쓰이는 귀하고 비싼 광물.

국민들에게 매 년마다 1억원씩 그리고 무료로 집 지급.
병원비 무료, 세금 No, 고급외제차, 파티 등이 끊이지 않음

국민의 90%가 비만과 당뇨병자.
정부는 외환 빌리기 시작. 난민, 테러리스트, 마피아 등 범죄자들에게 국적 지급
2005년 파산 선포

부담을 피했을 때

부담을 피했을 때



01 대화 단절 및 고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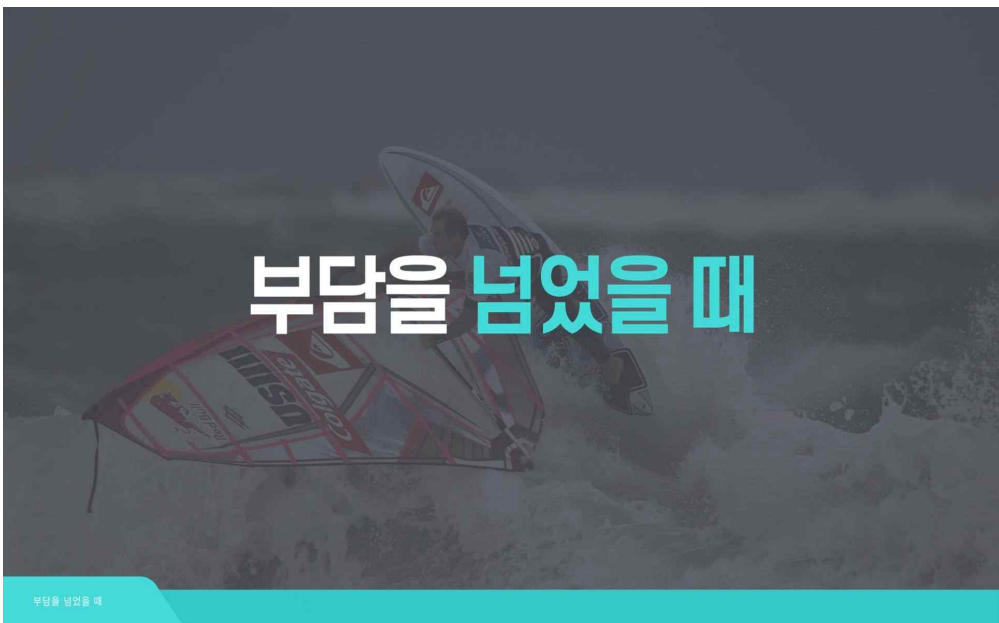


02 약한 마음



03 실패

부담을 피했을 때



영화 'Alive'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1993년작



1972년 10월 13일 금요일 오후
우루과이 럭비팀 안데스 산맥에 추락

부담을 넘었을 때

영화 'Alive'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1993년작

- ❖ 해발 3500M, 체감 온도 영하 40도의 극한의 환경에서 생존을 위한 사투
- ❖ 안데스산맥 극한의 상황에서 인육먹으며 72일간 16명 생존

부담을 넘었을 때



세컨드윈드

극한 뒤 숨어있는 달콤함

운동을 시작하고 지속하다 보면 호흡이 가빠지고 걷디기 힘든 때가 오는데,
이 힘든 시점을 극복하고 걷디어 내면 호흡도 안정화 되고 고통도 점차
줄어들어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편안한 신체 상태가 된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를 **세컨드윈드**라고 한다.

부담을 넘었을 때



커넬 할랜드 샌더스(1890-1980)

1008번의 실패

1009번째 성공

KFC창시자 켄터키 할아버지



부담을 넘었을 때

부담을 넘었을 때



강한마음



자존감 향상



행복

마음의 역량이 강화된다.

다른 사람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사람을 얻어가는 마음의 그릇이 큰 사람이 된다.

부담을 넘었을 때

● 세계최고의 부사관



나는 세계최고의 부사관이다!

마음의 변화가 인생을 바꾸고

인생의 변화가 세상을 바꾼다

제 2주 제

부서관 AI 역량강화 활성화 방안

정순동

(정치학박사, 한국군부서관발전연구소)

1. 들어가며

- 미래 전장은 AI와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 부사관은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의 중심에서 군사작전의 성공을 주도하는 핵심 인재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 이를 위해 부사관의 AI 역량 강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2. 부사관 AI 역량강화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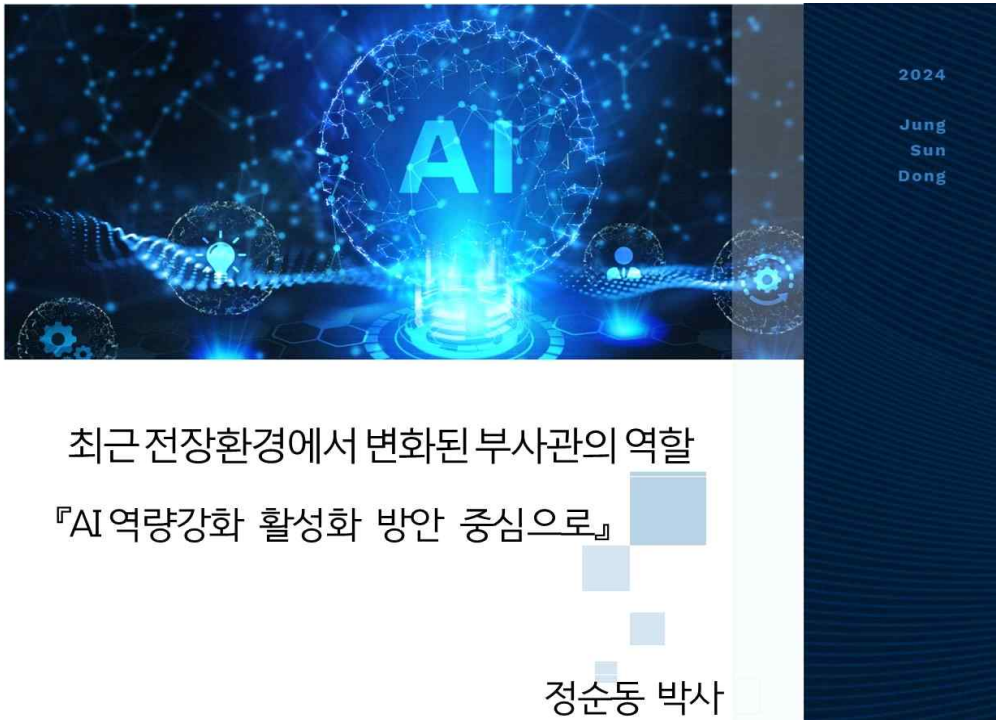
- 국방개혁 4.0과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 국방개혁 4.0은 AI 기반 군사작전 체계와 첨단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여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부사관은 AI 활용 전문가로서 빅데이터, 드론, 로봇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작전 계획과 실행을 이끌어야 합니다.
- AI의 현대 전장에서의 역할
 - AI는 전투 상황 분석, 전쟁 흐름 예측, 군사 훈련 및 작전 계획 수립에 기여합니다.
 - 예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과 AI 기술은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핵심 기술로 자리잡았습니다(AI역량강화 활성화 방안)

3. 부사관 AI 역량강화 활성화 방안

-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도입
 - AI 군 특화 교육 과정 신설 및 정기적 교육 프로그램 운영.
 - AI 활용 훈련 시뮬레이션과 실습으로 실전 적용 능력향상.
- 기관 협력과 네트워킹
 - 군사교육기관과 산학 협력을 통해 AI 전문 강사양성 및 교육 제공.
 - 학군 협약 대학과 연계하여 AI 필수 과목 반영 및 부사관 위탁 교육 확대.
- AI 커뮤니티 및 연구 활성화
 - AI 경진대회, 워크숍 개최로 AI 활용 붐 조성.
 - 병과별 AI 기술 적용 가능성을 탐구하는 발전 세미나개최.

4. 마무리

AI는 미래 전장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기술입니다. AI 역량을 강화한 부사관은 대한민국 군의 첨단화를 선도하는 주역이 될 것입니다. 오늘 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도전과 성장이 국방개혁 4.0의 성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개요

1page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한 부사관 AI역량강화는 군사작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1 부사관 AI 역량강화 필요성



국방개혁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전장에서 AI와 첨단기술사용
(우크라이나 전쟁 드론, 로봇 등)



AI 군사적 기술활용 증대



전쟁에서 AI와 첨단기술[우크라이나전쟁]

3p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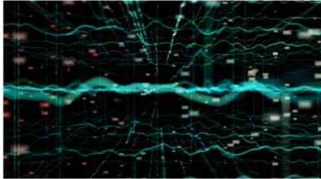
- 첨단기술의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
- AI기업들의 기술개발 및 지원으로 가능



AI를 활용한 군사작전 지원[드론]



AI를 통해 전쟁 중인 지역의 전투상황을 분석



데이터 분석 평가를 통한 전쟁흐름 예측



군사훈련과 군사작전 계획에 활용

국방혁신4.0추진

2page

『국방혁신4.0』 추진으로 AI과학기술 강군을 육성



대통령직속 국방혁신4.0 민간 합동위원회 설치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전투 체계로 단계별 전환



새로운 한국형 전력증강 프로세스 정립



첨단 과학 기술 기반 군 구조 발전



과학적 훈련 체계 구축



혁신, 개방, 융합의 국방 R&D 체계 구축

AI 군사적 기술활용 증대

4page

AI역량은 현대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부사관의 필수적인 역량이다.

01

AI첨단무기체계
및 시스템 구축



기술 융합과 혁신, 현대전 작전 준비[드론 및 로봇기술]
AI동화시스템을 통한부사관작전수행 능력효율성증대

02

교육 및 훈련 혁신 주도



AI기술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실전적인 훈련
가상시뮬레이션/실습을 통해 실전 적용 능력향상 및
상황대처 능력 배양

03

빅데이터 활용
업무 효율성 극대



전,평시 분야별 빅데이터 적용 및 활용
병역자원 문제 해소 및 인명손실 최소화 대책

핵심 과제[보안]

5page

- 엔트로픽이 팔란티어 및 AWS와 협력하여 미국정보 및 국방 기관에 AI (인공지능) 모델 '클로드'를 제공하고, 기밀 데이터를 처리
- 메타와 오픈AI도 국방관련 협력을 확대하고 AI기술의 군사적 활용 가속화

[출처: 시타임스 기사 '24. 11. 8] 엔트로픽도 군사용 AI 판매, "군사 기밀도 취급가능"



AI 역량강화 교육 활성화 방안

7page

A는 미래전장에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기술이다.
"미래의 AI 첨단기술, AI 기술 활용 전문 교육군부사관"

01

AI 군 특화
교육 개설 및 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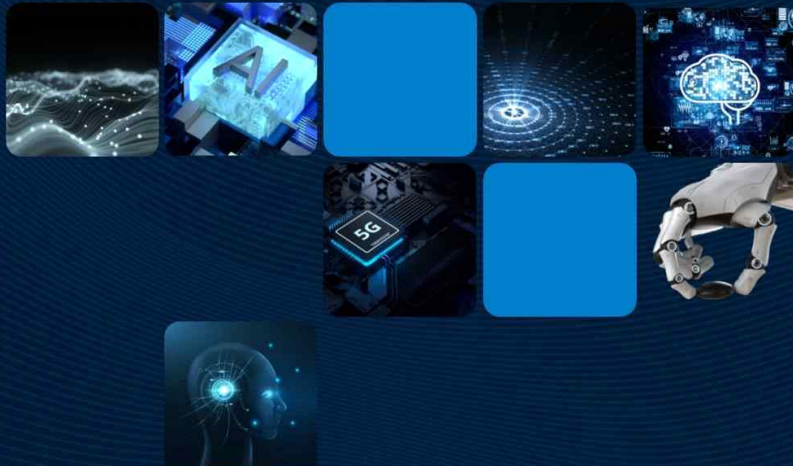
- 미디어 훈련센터 개설(산학 협력)
- 군사교육기관에 AI 교육과정 신설
- 직무 보수과정에 필수과정으로 이수
-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용(AI 신기술 적용)
- AI 커뮤니티 활성화(온라인 플랫폼 품 활용, 정보공유)
- AI 기술을 활용한 훈련 시뮬레이션 사용
- 인공지능 교육개념에 입각한 인재교육 강화

02

기관 협력 및 네트워킹



- 부사관 위탁교육 확대(AI학과) : 전문강사 양성
- * 군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 경력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지원
- 인공지능 연구가능 및 필요성 도출
- * 병과 및 직책별 적용가능 연구를 위한 발전 세미나 개최
- 학군 협약대학(군사학과) AI 필수과목 반영
- * 컨소시엄(consortium) 구성
- 부사관 역량강화 워크숍 교육, AI 경진대회 등 "봄 조성"



THANK YOU

제 3 주 제

최근 전장환경에서의 소부대
통신장비 운영 방안

최원호

(방산 PNCS, 예비역 소령)

1. 서론: 현대 전장환경과 부사관의 역할 변화

- 현대 전장은 AI와 첨단기술이 주도하며, 소부대의 작전 운영에서 통신장비와 AI 기술의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 국방개혁 4.0을 통해 부사관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와 **JADC2(합동전영역지휘통제체계)**의 핵심 운용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현대 전장에서 소부대 통신운용).

2. 최근 전장환경에서의 소부대 통신장비 운영 방안

- 통신장비의 현대화:
 - MANET(Mobile Ad-hoc Network)와 FANET(Flying Ad-hoc Network) 기술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구축.
 - 기존 통신 인프라 없이 자가 극복 기능과 동적 토폴로지를 통해 유연하고 안정적인 통신망을 확보.
- 클라우드 기반 정보 관리:
 - VDI(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를 활용해 통신 데이터의 보안성과 신속성을 강화.
 - 데이터센터 간 실시간 전환 체계를 통해 생존성과 즉각성을 보장.
- AI 기술의 통합:
 - AI 기반 분석 시스템으로 전투 상황을 예측하고 데이터 처리 속도를 극대화.
 -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과 연계한 입체적 경계시스템운영.

3. 부사관 AI 역량 강화 활성화 방안

- AI 전문 교육:
 - AI 활용 훈련 시뮬레이션과 실전 적용 프로그램을 통해 작전 수행 능력 강화.
 - 군사교육기관 및 산학 협력을 통한 AI 전문 강사 양성.
- 다영역 작전(MDO) 수행 준비:
 - 육·해·공뿐만 아니라 우주·사이버·전자기 작전의 통합운용 역량 배양.
 - AI 기반의 지휘결심 및 통제체계(JADC2) 운용 능력 확보.
- 조직 내 AI 생태계 활성화:
 - AI 경진대회와 워크숍을 통해 실질적인 기술 적용 사례를 공유.
 - AI 중심의 빅데이터 분석과 연구개발지원 체계 구축.

4. 결론: 미래를 준비하는 부사관

“AI와 첨단기술은 부사관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입니다. AI 중심의 소부대 통신장비 운영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운용을 통해 부사관은 미래 전장에서의 성공을 이끄는 리더가 될 것입니다. AI 역량을 갖춘 멋진 부사관으로 성장하십시오.”



국방부 사단법인
국방보건복지
연구원

최근 전장환경에서의 소부대 통신장비 운용 방안

국방정보통신망현대화사업단(DNMG)

순서

- 현대 전장환경 개념 및 특성
- 국방 정보통신체계 개발 현황
 - * VDI 클라우드시스템
 - * MANET / FANET 네트워크
- 결 론

국방정보통신망현대화사업단(DNMG)

현대 전장환경 개념 및 특성

DNMG-LEG-INVEST SARL

국방혁신 4.0

추진 배경



미래 국방이 극복해야 할 도전요인

-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현실화
- 미·중패권 전쟁에 따른 불안정성 증대
- 전쟁패러다임 변화와 기술패권 경쟁 심화
-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기회요인

- 대한민국 첨단과학기술의 발전
- 방위산업의 경쟁력 급상승

국방정보통신광현대회사업단(DNMG)

국방혁신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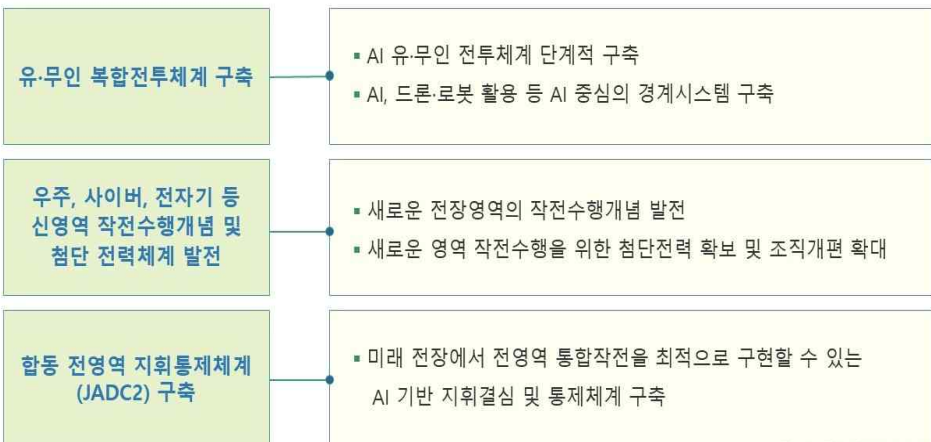
개 념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북한 핵·미사일 대응, 군사전략 및 작전개념, 첨단 핵심전력 군구조 및 교육훈련, 국방과학기술 분야를 혁신하여 경쟁우위의 AI과학기술강군을 육성



국방혁신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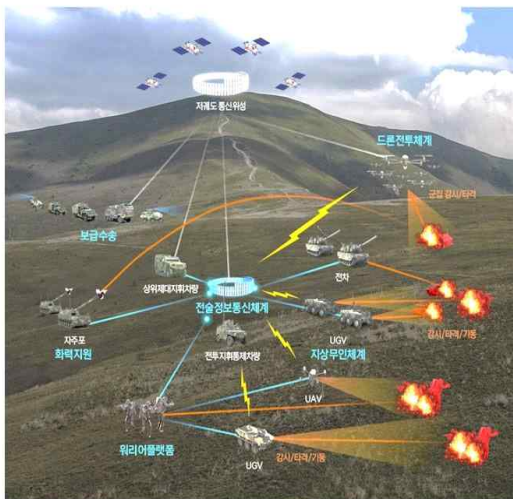
AI 기반 핵심 첨단전력 확보



유무인복합전투체계 소개 동영상

국방정보통신광현대화사업단(DNMG)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체계 개념(MUM-T, Manned-Unmanned Teaming)

- 소수의 운영자가 다수의 무인전투체계를 유인 전투체계와 함께 운용하는 차세대 전투체계
- 불확실한 전장 상황에서 전투 효율성 증대, 유인과 무인체계의 강점을 결합, 복합 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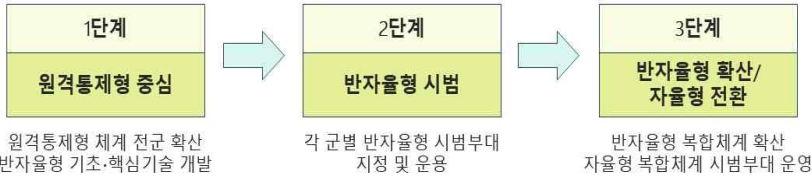
목 표

- 각 군 전투체계 MUM-T화를 통한 단위 부대 독자적 작전 능력 및 생존성 극대화
- 다양한 정보 획득 및 실시간 정보 분석 / 의사결정지원 등 임수수행 템포 향상

국방정보통신광현대화사업단(DNMG)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단계적 구축



AI, 드론·로봇 활용 등 입체적 경계시스템 구축

- AI 기반의 경계시스템으로 개선
- 현 경계시스템을 로봇·드론과 연동시켜 획기적으로 보강

무인체계 효율적 전력화를 위한 기반 구축

- 네트워크 연동·표준 및 보안·암호체계 구축, 주파수 활용기술 개발, 드론 통합관제체계 구축

국방정보통신광현대화사업단(DNMG)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 한화시스템의 무인수색차량 운용개념도 >

국방정보통신광현대화사업단(DNM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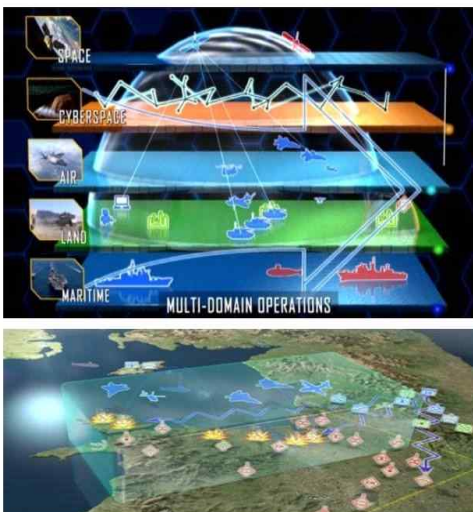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 경기도 연천군 5사단 AI 경계작전센터 >

국방정보통신광원대화사업단(DNMG)

합동전영역지휘통제체계(JADC2)



다영역작전(MDO, Multi-Domain Operations)

- 전통적인 육·해·공뿐만 아니라 우주·사이버·전자기·정보를 모두 포함한 영역에서 다양한 전력을 운용하는 개념

기대효과

- 다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작전을 수행, 적 의사결정 체계를 혼란시키고 방어 전략 약화
- 반접근 및 지역거부에 사용되는 각종 무기체계들의 신속한 제압 및 파괴
- 전략적 억지력 강화
- 결정적 효과의 창출

국방정보통신광원대화사업단(DNMG)

합동전영역지휘통제체계(JADC2)

합동전영역지휘통제(JADC2: Joint All-Domain Command and Control)

- 합동 전장정보를 활용하여 실시간 전장을 가시화하고, AI기반의 지휘결심체계를 통해 효율적인 합동전력 운용을 보장함으로써 전 영역 우세 달성을 구현하는 차세대 지휘통제 개념



국방정보통신광현대화사업단(DNMG)

합동전영역지휘통제체계(JADC2)



Figure 1 JADC2 Placemat

접근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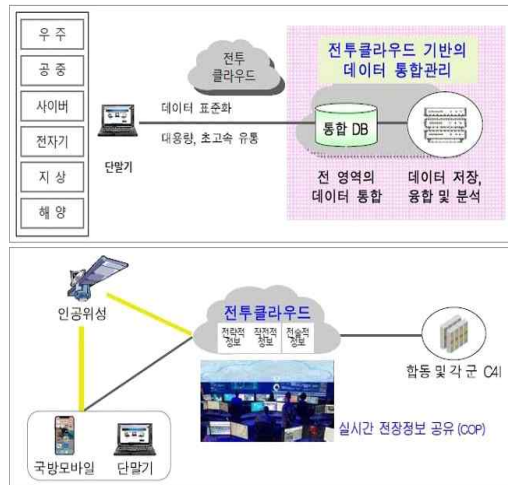
- 감지(Sense): 모든 영역에서 적보다 먼저 신속하게 데이터를 수집, 종합, 처리 및 공유
- 이해(Make Sense): 작전환경 및 적의 의도 등을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해 정보를 분석하고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등 자동화된 기술 활용 결심주기를 단축
- 행동(Act): 보안이 유지된 상태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결심을 전파

국방정보통신광현대화사업단(DNMG)

합동전영역지휘통제체계(JADC2)

JADC2 전략의 핵심 기술

- 데이터 중심 지휘통제
 - 공통 데이터 프레임 워크 구현
 - 데이터 중앙화(클라우드 개념)
- 전장 분야 인공지능 기술 적용
 - AI기반 지휘결심 및 통제체계
- 데이터를 고속으로 안전하게 통신하는 능력
 -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
 - 네트워크 통합
 - 회복탄력성 보장
 - 적 전자기·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호



국방정보통신광원대화사업단(DNMG)

합동전영역지휘통제체계(JADC2)

5G 기반의 초고속·초연결·초저지연 기동형 분산 전술통신시스템



국방정보통신광원대화사업단(DNM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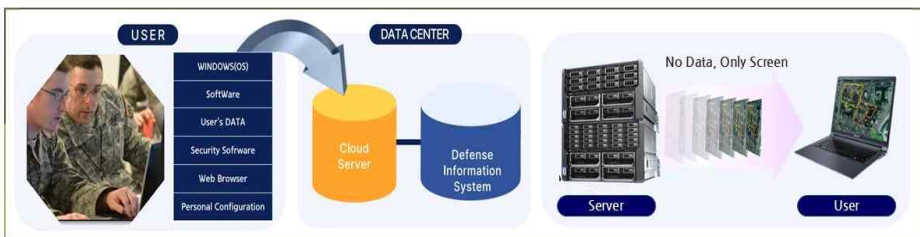
국방 정보통신체계 개발 현황

DNMG-LEG-INVEST SARL

VDI 클라우드 시스템

VDI(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 시스템

- 사용자 컴퓨터의 모든 리소스(운영체제, 응용프로그램, 데이터 등)를 서버로 통합하여 정보의 생산, 열람, 수정, 배포 전 과정이 클라우드에서 실행
- 사용자에게는 데이터가 아니라 화면 값만 전송하는 최신 기술



국방정보통신광원대화사업단(DNMG)

VDI 클라우드 시스템

인가된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 어떤 단말기에서든 클라우드에 접속만 하면 동일한 정보환경에서 작전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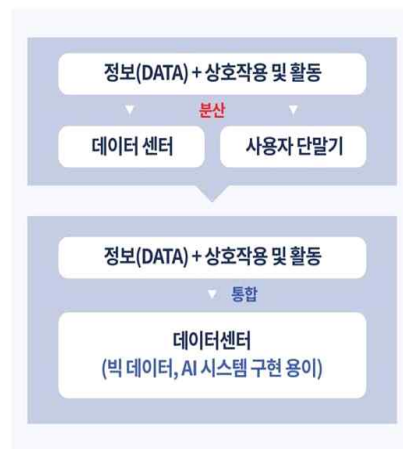
국방정보통신광현대화사업단(DNMG)

VDI 클라우드 시스템

한국형 MULTI-ENCLAVE CLIENT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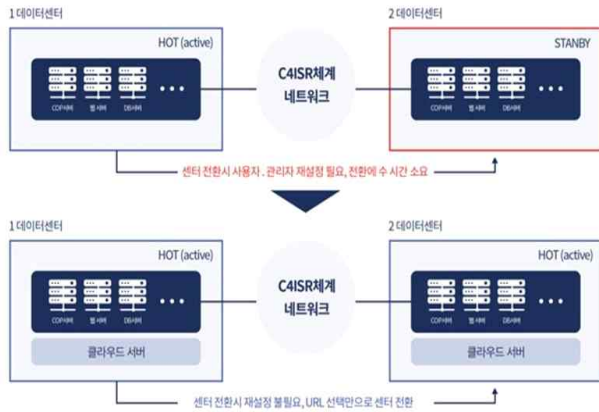


AI 구현에 최적화된 환경 조성



국방정보통신광현대화사업단(DNMG)

VDI 클라우드 시스템



데이터센터간 동적전환 체계 구현 (Dynamic Failover)

- 기존 HOT-STANBY 방식은 주 센터 두절시 체계 전환에 수 시간 소요
- VDI시스템 구현시 모든 서버가 동작하면서 한 개 센터 두절시 실시간 자동으로 센터 전환 가능

※ 현대 전장이 요구하는 생존성, 연속성, 즉각성 보장

국방정보통신광원대화사업단(DNMG)

MANET / FANET 네트워크

개요

- MANET(Mobile Ad-hoc Networks)**
스스로 구성 및 조직하는 모바일 장비들의 네트워크
- FANET(Flying Ad-hoc Network)**
무인 항공 기기와의 네트워크
- 에드혹(Ad-hoc) 네트워크**
네트워크 인프라없이 모바일 노드들이 동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
모든 노드가 송신자, 수신자, 중계자 역할 (멀티홉 방식으로 통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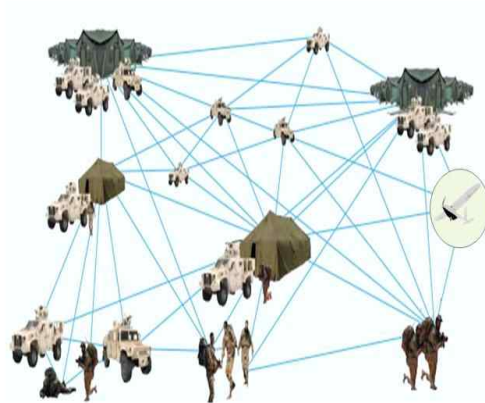


국방정보통신광원대화사업단(DNMG)

MANET / FANET 네트워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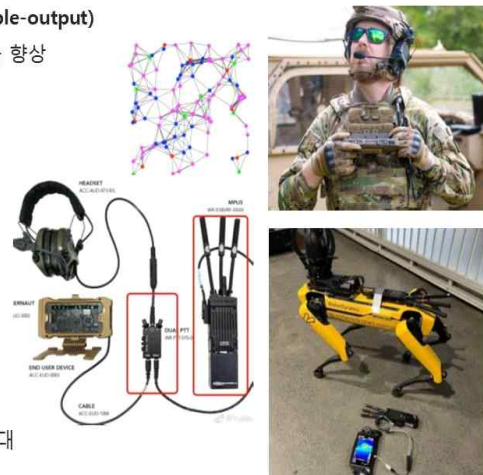
- 무인체계와 연동하여 첨단 센서(EO/IR HD급 카메라 등)로 획득한 대용량 멀티미디어 정보유통 가능
- 대용량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유통 가능하고, 기존 체계와 RoIP 연동 가능한 네트워크 무전기
- 라우터나 무선 접속 포인트와 같은 기존 통신 인프라 없이 애드혹, 메쉬 기반 네트워크 기반을 통해 다계층 네트워크 구축



국방정보통신광원대화사업단(DNMG)

MANET / FANET 네트워크

- 다중안테나기술(MIMO, multiple-input and multiple-output)
여러 개의 안테나를 사용하여 통신용량, 신뢰성 등을 향상
Spatial Diversity → 데이터 전송 신뢰도 향상
Spatial Multiplexing → 데이터 전송 용량 향상
Antenna Beamforming → improve the coverage
- 채널 추정기술
MIMO 시스템 성능 보장을 위한 필수 기술
동시에 수신한 신호의 정확한 디코딩을 위해 필요
- 상황적응기술
MIMO모드전환 → 전송효율증대, 에너지절약
CR(Cognitive Radio) → 간섭회피
AMC(Adaptive Modulation Coding) → 전송효율증대
- 소형화/모듈화



국방정보통신광원대화사업단(DNMG)

MANET / FANET 네트워크

주요 기능

- 신속한 정보 공유나 망 구성 필요 시 즉각적 대응
- 통신 장애 발생 시 자가 극복 기능
- 통신소(중앙 제어)나 표준 지원 서비스 없이 임시 망 구성 및 운용
- 동적 토폴로지 운용으로 장치 및 사용자의 이동이 매우 자유로움
- 매우 간단한 절차만으로 가입자의 추가/탈퇴 가능

제 원

주파수	UHF/L/S/C
다중 접속	Hybrid TDMA/CSMA
송신 출력	2W 이상
통달 거리	2km @ 6Mbps (지상 - 지상)
	8km @ 30Mbps (지상 - 공중)
	8km @ 40Mbps (공중 - 공중)
중계 홉	4 중계 홉 이상



휴대용
무선기



차량용
라디오



드론용
라디오

국방정보통신광현대화사업단(DNMG)

MANET / FANET 네트워크

형태별 장비구성



국방정보통신광현대화사업단(DNMG)

결론

DNMG-LEG-INVEST SARL

MANET / FANET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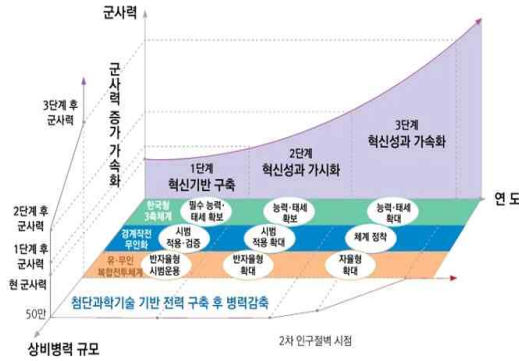
요약

- 현대 전장환경 개념 및 특성
 - 국방혁신 4.0
 - 유무인 복합전투 체계
 - 합동전영역지휘통제체계(JADC2)
- 국방 정보통신체계 개발 현황
 - VDI 클라우드 시스템
 - MANET / FANET 네트워크



국방정보통신광학전자연구소(DNMG)

결론



- ① 현대 전장의 개념 변화에 따른 소부대 작전운영의 변화상은?
- ② 국방혁신 4.0의 가시화 속에 변화되는 부사관의 역할과 책임은?
- ③ 유무인복합전투체계와 JADC2의 첨단(尖端) 운용자가 될 부사관이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은?

국방정보통신망현대화사업단(DNMG)

감사합니다.

국방정보통신망현대화사업단(DNMG)

제 4주 제

초급간부의 정신전력이
전장에서 미치는 영향

조태환

(한국군부사관발전연구소)

1. 서론: 초급간부 정신전력의 중요성

- 초급간부는 소부대의 리더로서 부대의 사기와 전투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현대 전장환경에서는 정신전력이 전투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2. 정신전력의 전장 기여 사례

- 부여 대간첩작전(1995):
- 작전 성공 요인: 중대장과 소대장의 강한 전투의지와 철저한 훈련이 부대원의 자신감을 고취. 병사들 간의 전우애와 반복된 예행연습이 실전에서 효과적으로 발휘됨(초급간부의 정신전력이 전장에 미치는 영향).
- 정신전력의 역할: 전투 중 리더의 신뢰와 결단력이 부대 전체의 전투 의지를 이끌어냄. 적을 치지 못하게 하는 준비와 자신감이 작전 성공을 이끌었음.
- 현대 전장에서의 적용: 정신전력 강화는 AI 기술과 결합하여 전장에서의 결단력과 생존성을 극대화할 수 있음. 초급간부의 정신적 리더십은 부대원의 사기와 전투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함.

3. 초급간부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방안

- 교육훈련의 내실화: 실전과 유사한 훈련 환경 조성으로 자신감과 단결력을 배양. 반복적 훈련과 피드백을 통해 상황 대처 능력 향상.
- AI와 첨단기술 활용: AI 기반 훈련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전 대응 능력을 사전에 습득. 현대 전장환경에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능력 강화.
- 정신전력과 기술의 융합: 정신전력은 기술의 효과적 운용과 결합되어야 함. 상관과 동료에 대한 신뢰, 그리고 스스로의 준비 상태를 믿는 마음가짐이 필요.

4. 결론: 초급간부 정신전력의 핵심 메시지

- “적이 내 앞에 오지 않을 것을 믿지 말고, 내가 적을 맞아 싸울 준비를 믿으라.”
- 초급간부의 강한 정신전력은 부대의 전투 의지를 고양하고, 전장에서의 성공을 보장합니다.
- 정신전력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대한민국 국방개혁 4.0의 핵심 리더로 거듭나십시오.



1. 효	시
2. 창 끝	전 투 력
3. 95년도 부여	대간첩 작전
4. 결	론

024-1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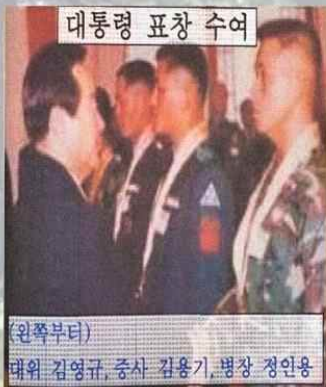
창끝전투력

- 대부대
대대급 이상의 제대
- 소부대
중대급 이하 의 제대

024-11-24

특

부여 대간첩작전



당시 육군중사 김용기



현 예비역 육군상사 김용기

024 11 24

특



부여 대간첩작전

- **작전개요**
- **작전기간** : 95. 10. 24(화) 15:15 ~ 10. 27(금) 13:30
- **작전지역** : 충남 부여군 석성면, 초촌면 일대
- **작전인원** : 22,734명
군 병력 26개 대대 : 7,486명, 예비군 병력 : 13,636명,
경찰 병력 1,612명
- **작전결과**
전과 : 사살 1명 (제203특공여단 3대대), 생포 : 1명(경찰)
피해 : 경찰(2명 전사)
노획 : 김동식(권총1정 등 6개품목), 박광남(권총 등 6개품목)

024-11-24 락글



부여 대간첩작전

- **생포 (후송중 과다출혈로 사망)**
- **시간** : 95. 10. 27(금) 10:20 ~ 10:56경
- **작전지역** : 충남 부여군 초촌면 일대
- **작전개요 (기상 : 안개 짙음 시야제한)**
10:20 적 은거 징후 포착
10:30 압축 및 정밀 수색정찰

024-11-24 락글



부여 대간첩작전



10:50 안개 걷힘 시야 확보 적발견

[병장 정인용] 7.2m까지 접근

10:51 중사 김용기 기도비닉 유지 박광남에게 접근

10:53 투항권고 박광남 아무런 행동도 못하다가
일어나는 척하면서 권총 1발 사격 후 도주
4발 대응사격 이를 신호로

10:54 수색조 4명 일제사격과 동시에 추격
35m 정도에서 쓰러짐 포위 구성

10:56 포박 및 체포 후송



부여 대간첩작전



□ 작전병력 소감[작전성공 요인]

중대장 대위 김용규(총무무공훈장 수훈)

평소 교육훈련으로 선봉특공중대 달상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적을 잡겠다는 중대의 전투의지 교육훈의 결과

소대장 중사 김용기(총무무공훈장 수훈)

예행연습실시 유의사항 교육 죽음을 무릅쓰고 교전에 임한 결
과 성공적으로 적을 사살할수 있었다.

분대장 병장 정인용 (총무무공훈장 수훈)

평시 교육훈련의 과제에 대한 반복숙달에 얻은 자신감, 단결
된 전우에 작전투입전 실탄(소총탄, 수류탄등)

024-11-24

박광

결론

믿음

無待其不來

적이 내앞에 오지 않을 것을 믿지 말고,

侍吾有以待也 (상관, 동료, 나의 훈련수준 및 상태)

내가 적을 맞아 싸우게 할 준비를 믿으라

無待其不攻

적이 나를 치지 않을 것을 믿지 말고

侍吾有所不可攻也

적이 나를 치지 못하게 할 나의 준비를 믿으라

결론

道者

令民與上同意

可如之死, 可如之生

而不畏危也

024-11-24

박글

2024 한국군부사관발전연구소 학술대회
군 간부를 위한 부사관임무수행 발전방안

2024년 11월 23일 인쇄

2024년 11월 16일 발행

발 행 인 정 명 열

발 행 처 한국군부사관발전연구소
사)국방보건복지연구원

TEL.061-360-5228, FAX. 061-360-5281

홈페이지 <http://www.kamtsw.com>

e-mail energybus99@naver.com

인 쇄 처 승지원문화사

<http://hyoil.com>
